



“해켓 물렸거라
이젠 나의 시대”

박태환이 21일 일본 지바에서 열린 수영 프레올림픽 '2007 일본국제수영대회'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4초77로 '라이벌' 그랜트 해켓을 제치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역시 박태환... 또 대역전 드라마

日국제수영 자유형 400m 우승

막판 스피트...라이벌 해켓 제치

‘코리아 마린보이’ 박태환(18·경고고)이 장거리 자유형 ‘10년 제왕’ 그랜트 해켓(27·호주)의 시대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박태환은 21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일본 지바 국제종합수영장에서 펼쳐진 수영 프레올림픽 ‘2007 일본국제수영대회’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4초77로 ‘라이벌’ 해켓(3분45초27)을 제치고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어, 이 종목 세계 1인자 자리를 굳혔다. 박태환은 5개월 만에 열린 베이저대회에서 해켓을 비롯해 마테우츠 소리모비츠(폴란드), 장린(중국) 등을 또 한번 제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가능성을 밝혔다. 특히 박태환의 우승은 자유형 장거리에서 제왕으로 군림해 온 해켓을 다시 한 번 무릎 꿇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태환은 지난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해켓을 3위로 밀어냈다. 당시 호주 신문들은 ‘10년 권좌의 종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며 수영 변방 한국

고등학생의 등장에 놀라워했다. 해켓은 이후 명예회복을 선언하며 맹훈련을 해왔다. 매일 1만m 넘게 해업을 치며 ‘권투중대’한 것. 몸무게가 6kg이나 빠지며 전성기 시절 몸매를 되찾았다. 하지만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대결에서 이제 무력무력 성장해 나가는 박태환을 꺾기에는 무리였다. 박태환으로선 두 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으나 이제 ‘인간어뢰’ 이언 소프(호주)의 뒤를 이은 명실상부한 세계 챔피언으로 거듭난 것이다. 더구나 베이징올림픽을 1년 앞두고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소리모비츠도 출전해 타이틀 방어를 노리지만 박태환과 해켓의 대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턴기술 보완하면 베이징 金 확실”

■ 박태환 다듬어야 할 점

수영 프레올림픽 ‘2007 일본국제수영대회’ 자유형 400m에서 우승한 박태환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올림픽까지 무엇을 더 다듬어야 할까. 박태환을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최연소 국가대표로 전격 선발한 김봉조 전 경영대표 감독 겸 경기력향상위원장은 자신에게 맞는 단위 스피드와 피치수(팔을 휘젓는 수)를 완전히 습득하고 턴 기술을 보완하면 베이징 금메달은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박태환의 기술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지바를 찾은 김봉조 전 위원장은 일단 50m 단위 속도를 27초대에 고정해 감각을 완전히 익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태환의 현재 400m 기록은 3분44초30.50m를 28초로 끊으면 3분44초에 골인할 수 있는데 이를 앞당길수록 자신의 기록을 단축할 수 있다. 또 50m 피치수는 30-32개로 고차시

켜야 한다. 마지막 50m에서는 스피트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질 수 있지만 350m까지 일정하게 피치수를 유지하면 체력을 비축해 스피트에서 더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턴을 가다듬어야 한다. 현재 박태환의 턴 이후 잠영 거리는 7m 정도. 미국의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는 10~11m 정도까지 나간다. 물 밖에서 헤엄치는 것보다 잠영을 하면 기록이 단축되기 때문에 펠프스 정도만큼은 아니더라도 9m 정도까지 잠영 거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벽을 더 힘차게 박치고 나가는 하체 근력을 더 길러야 한다. 김봉조 위원장은 이에 더해 올림픽까지 1년 동안 실전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400m나 1,500m와 같은 장거리 자유형에서는 거리 감각이 몸에 배어 있도록 꾸준한 훈련과 실전 연습이 필수라는 것이다.

■ 오늘 오후 8시 한국-우즈벡 올림픽축구亞최종예선



한동원-신영록

“골사냥 나선다”

“신영록은 세계무대에서 경험을 많이 쌓아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박성화 감독), “한동원은 득점이 가능한 위치를 잘 찾아가는 능력을 가졌다”(김베어백 전 감독)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목표로 나선 올림픽축구대표팀이 22일 오후 8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앙아시아의 강호 우즈베키스탄과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을 치르는 가운데 신영록(20·수원)-한동원(21·성남) 투톱이 골 사냥의 선봉에 나선다. 신영록과 한동원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골 맛을 봤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신영록은 2004년 10월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 후반 30분에 김승용과 교체돼 들어가 연장 전반 16분 기막힌 오버헤드킥으로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스타탄생’을 알렸다. 이후 신영록은 동료보다 두 살 가량 어린 나이에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를 두 번이나 경험하면서 국제무대 감각을 익혔고, 오랜 K-리그 생활로 큰 무대에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신영록은 올림픽대표팀에 발탁된 뒤 우즈베키스탄과 첫 대결을 펼치는 것이지만 3년 전 그라운드에서 만났던 카이다르프 아지즈, 살로모프 사프카트(이상 타슈켄트) 등과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만큼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반드시 골을 터트리겠다는 각오 뿐이다. 신영록의 ‘짜꿍’으로 낙점받은 한동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즈베키스탄 킬러다. 한동원은 3월 우즈베키스탄과 치른 아시아지역 2차 예선 홈 경기에서 나흘로 2골을 터트리면서 2-0 승리를 이끌었다. 당시 팀을 이끌었던 베어백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득점이 가능한 위치를 잘 찾아가는 능력을 가졌다”며 한동원 탁월한 골 감각을 칭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상금 1천만달러 노려라

PGA 투어 플레이오프 내일 개막...최경주 우승 후보

우승 상금이 무려 1천만달러에 이르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플레이오프가 23일 막을 올린다. 올해 첫 해를 맞는 PGA 투어 플레이오프는 총상금 3천500만달러 가운데 1위에게 1천만 달러를 몰아주는 과격적인 상금제도로 시즌 초반부터 관심을 모았다. 250명이 넘는 선수가 36개 대회를 치른 끝에 추려진 144명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1천만달러 짜리’ 우승급에 도전한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한국산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도 1천만 달러를 거머쥌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는 23일부터 나흘 동안 뉴욕주 해리스의 웨스트체스터골프장(파71·6천839야드)에서 열리는 바클레이스를 시작으로 도이체방크챔피언십, BMW챔피언십, 그리고 투어챔피언십 등 4개 대회로 치러진다. 바클레이스는 정규시즌 36개 대회 성적에 따라 부여받은 포인트 순으로 144명만 출전할 수 있다. 도이체방크챔피언십은 출전 선수가 120명으로 줄어들고 BMW챔피언십은 70명만 나갈 수 있으며 투어챔피언십 출전자는 30명 뿐이다. 대회가 끝날 때마다 20~50명씩 탈락시키는 것이다. 우승자는 4개 대회마다 주어지는 포인트를 합산해 결정하는데 일단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까지 살아 남는 게 중요하다. 바클레이스, 도이체방크챔피언십, BMW챔피언십에는 우승자에게 9천포인트가 부여되고 투어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1만300 포인트를 받는다. 바클레이스와 도이체방크챔피언십은 70명만 3, 4라운드에 뛸 수 있는 것 정도가 있고 BMW챔피언십과 투어챔피언십은 30명만 뛸 수 있다. 끝까지 살아남은 30명만 출전하는 투어챔피언십 우승자가 1천만달러의 주인이 될 확률이 높지만 4개 대회에서 고루 상위권에 입성한 선수가 절대 유리한 구조다. 최경주는 정규시즌 5위에 올라 기본 점수를 9만7천500 포인트를 받았다. 바클레이스에서 우승한다면 우즈베키스탄을 6천500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일단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4개 대회 가운데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한다면 ‘최경주 자신 재단’ 설립 자금을 때는 당사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